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핵심 구절: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2:14, 15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2:1-21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타르수스의 사울(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큰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사울 사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오직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의 출생지, 교육, 그리고 배경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이 풍부하며, 신앙심이 깊었고, 바리새인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율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열정적으로 지켰다. (사도행전 26:2-5; 빌립보서 3:4-6) 그는 초기 교회가 당연히 그를 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믿었기에, 선한 양심에 따라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진실했으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를 멈추게 하셨다. 그의 열정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바로잡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세우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정직한 마음에는 그분의 진리를 열어

주십니다. 사울은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의도는 옳았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회상하기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눈이 멀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사도행전 22:6-8).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분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즉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10) 이는 그의 뜻을 완전히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한때 오류로 인해 눈이 멀었으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진리에 대해 감사와 열정,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다마스쿠스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존경받고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는 이 새로 회심한 자가 이방인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소명을 위해 고난을 겪도록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한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한 확신으로 알기에 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2:11-13)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오늘의 핵심 구절에 담긴 말씀을 전하여, 그를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에 나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먼저 스스로 이해해야만 다른 이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